

언론동향(2.20.)

《언론보도 목차》

1. “한탄강 일대 남북경협지대 활용을” (경기일보) 2
2. 포천 오가리 마을, 생태평화 관광마을로 재탄생 (경기신문) 3
3. 경기관광 빅데이터 완성·영화사업 투자... 제2의 도약 (경기일보) 4
4. 통일부 “국제기구 요청시 코로나 對北지원 검토한다” (노컷뉴스) 5

“한탄강 일대 남북경협지대 활용을”

포천, 한탄강 평화포럼... 평화경제도시 실현 전략 모색

한탄강의 비전과 전략을 시작으로 평화경제와 평화도시 남북경협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남북경협 전략들이 제안됐다.

19일 포천시는 반월아트홀에서 ‘제3회 2020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한탄강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통일부, 경기도, (사)태평화교류협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관내 기관·단체 및 포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박영민 교수(대진대)는 ‘DMZ 접경지역의 인문학적 자원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DMZ 평화를 위한 노력의 역사 및 가치, DMZ의 비무장지대를 허물 수 있는 예술의 힘 등 DMZ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주제로 “개성공단은 이미 체험해 본 평화경제의 창이며 개성공단 재개 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와 남북 관계 개선 효과 및 정부의 의지 등을 역설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사업 추진계획’에

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해온 노력, 추진 중인 평화협력사업,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광역자치단체로 남북 관계는 경기북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도는 평화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남북 간 평화번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정태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장은 남북경협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 교류 및 남북경협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포천시와 우경협의 협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포럼을 주관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남북경협 거점 평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씨앗을 심고 변화의 싹을 틔우기 위해 조직개편과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확실한 성과를 맺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평화의 도시로 그 중심에서 있는 포천시가 통일한국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오가리 마을, 생태평화 관광마을로 재탄생

도,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모

포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폐공장과 빈집을 활용한 '생태평화 관광마을'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는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포천 오가리 마을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핵심이다.

포천시는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일원 약 19만㎡ 부지에 '생태평화 관광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며 교류하고, 마을 주변 자연·문화 관광

도 예산 15억원 등 총 30억 투입 마을 내 빈집·폐공장 등 활용 6차산업 체험 공동농장 등 조성 北접경지 마을에 활력 불어넣어

공간전문가 등 투입 현장 컨설팅 지속성장 위해 마을기업도 설립

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되던 폐공장, 마을 내 빈집 및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생산 판매장, 게스트 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 '한탄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해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 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공간활용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이 투입된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지난해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 관광 빅데이터 완성과 경기도를 일렬 영화사업 투자 등으로 경기관광공사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공사의 자립도 향상과 경기도 관광 정보의 집적화 등 경기관광공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유동규 사장은 도내 31개 시·군의 관광지 및 숙박, 음식점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플랫폼에 담아 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관광 정보를 뒤져보는 불편함을 없애 경기도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유 사장은 DMZ 및 개성관광에 대해서도 도와 함께 평화관광시대 준비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 사장은 자립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고심해왔던 영화제작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PPL 수준에 머물던 영화 제작 참여에서 벗어나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영화를 고르고 기획까지 참여하는 등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관광공사라고 해서 ‘관광’만 한 정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과 기획으로 문화예술품 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야 한다”며 “올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동규 사장의 일문일담.

“경기관광 빅데이터 완성·영화사업 투자... 제2의 도약”

Kyeonggi interview

Q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공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소감은
A 지난해는 남북이 화담, 일본 수출규제 등 국내외 이슈가 많았고, 관광분야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 국내관광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 개최했으며, 'YES KOREA! GO 경기' 캠페인 및 집중 홍보마케팅도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외부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 여행의 독자적 매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과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여행을 활성화 시킬 방안과 경기관광공사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기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앞으로 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해 도와원과 소통하면서 경기 관광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Q 경기도에서 관광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A 관광공사라고 해서 '관광'만 한정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과 기획으로 문화예술품 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야 한다. 이제 관광, 여행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위해서도, 관광 자재만으로도 공사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의 관광정책, 목표, 예산, 주력관광지 등 정보를 파악하고 총괄하는 데 외협력TF를 구성했으며, 올해 적극 추진예정이다. 처음에는 시·군 관광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에서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 즉 경기도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31개 시·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군 관광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도와 시·군의 관광분야 예산, 사업계획 및 성과 등 과거 사업의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지역별 문맥 특성, 경제력 기여도, 소비자 피드백(소비자출, 방문패턴)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시·군 관광정책 수립·집행을 도모하게 된다.
Q 지난해 성과를 소개해달라.
A 평화관광 활성화 및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진행했다. 임진각-캡트그리브스 평화관광을 위해 서울버스 및 체험 전차를 개설했으며, 경기북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북부 세

출해 핵심 정책은
도 관광 컨트롤타워 '대외협력TF' 가동 빅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플랫폼도 구축
한류 콘텐츠 개발
한류문화 중심 '글로벌 경기도' 브랜드화 직접 영화 기획·제작... 예산 확보 주력
‘평화 시대’ 경기도 관광 방향은
DMZ평화공원 조성, 세계적 관광지 목표 교통편리성 확대... 해외 대상 홍보 추진



협망 야간 관광 콘텐츠를 도입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관광 브랜드 마케팅도 다각화했다. 해외 주요시장 6개국 7개 TV프로그램의 경기도 촬영 유치, 해외 유력 인플루언서 활용 경기관광콘텐츠 제작, 글로벌 마이스 행사 및 아시아지역 대형 인센티브 유치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각종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고령자여행도 여대 최고점 획득(관광공사군 중 한산평령 1위),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그룹 최고점(2018-2019년 2연속 1위) 등의 성과를 올렸다.
Q 중시 내부 발전을 위한 계획은
A '승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 지난해 초급간부 개념으로 '파트장'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고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했다. 또 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회사로, 직원들의 역량발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성인이 높은 회사, 가족친화적인 회사, 긍정적인 회사가 되게 하겠다.
Q 올해 핵심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A 관광 컨트롤타워(허브)로서 시·군 협력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장 직속 대외협력TF팀을 지난해 12월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된 시·군의 관광정책 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도-시·군 간의 관광수요 대응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허브로서의 기능도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도-시·군 관광정책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북부 중심의 31개 시·군의 관광정책 DB(정보·비밀정보)를 구축,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군별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도 진행하겠다.
이와 함께 한류(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심형 관광지 발굴과 접근성 향상 사례도 만들겠다. 개인 등 4차산업과 연계해 경기여행 플랫폼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경기도 영상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한류문화의 중심 경기도'의 브랜드에도 완성하겠다. 기존처럼 영화에 단순 PPL만 하는 경우 경기도에는 해당 영화나 드라마에 제작권이 없으면 활용하지 못했는데, 직접 제작자로 나서 투자할 수 있도록 PPL까지 고루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Q 평화의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 관광의 방향은
A DMZ와 개성관광은 시대의 흐름이다.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도와 공사에서 개성관광·평화관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DMZ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곳 1위며, 평화·안보 외에도 생태관광지로서의 매력 높다는 평가다. 현재 공사는 임진강특대다리, 임진강평화누리캠핑장, 캠프그리브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DMZ 일원에 평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DMZ는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지만 아직까진 임진강 평화누리에 불과하니 시설 등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DMZ 일원에 평화관광, 생태관광을 위한 DMZ평화공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Q 경기관광에서 보장할 부분이 있다면.
A 숙박여행, 장기여행 목적지로서 경쟁력과 인지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기도가 서울을 끼고 있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서울 관광객이 경기도로 올 수 있지만 경기도를 스쳐 지나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경기도를 여행하더라도 관광지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경기관광박물관, 찾아가는 홍보관, 시·군 PPL 등 해외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모바일 등의 홍보도 추진하겠다. 특히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과 개발관광객(FT)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고민 중이다. 개별관광객들의 주요이슈인 교통편리성을 확대하고, 관광 약자를 위한 동시에 시·군별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도 진행하겠다.
Q 올해 경기관광공사의 각오도 도민들에게 전하자면.
A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경기도인, 넓게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이 알고 있고, 도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향성 업무에 돌 것이다. 경기관광공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실무자·공정·객인의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최후까지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통일부 "국제기구 요청시 코로나 對北지원 검토한다"

2020-02-10 14:11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국제기구 코로나 對北지원 "현재 문의 단계"
北, UNICEF·WHO에 코로나 지원 요청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요청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19 對北 방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對北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제기구의) 문의 단계"라며, "국제기구의 공식 요청이 올 경우 정부도 그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관련된 개인 보건용품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며 물품 전달을 추진 중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WHO에서 실험용 시약과 고글, 장갑, 마스크, 가운 등과 같은 보건 종사자들을 위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상기 대변인은 북한의 발병여부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발병 사실이 있을 경우 북한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는 만큼 국제보건기구와 협조해 발병 상황을 파악할 나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inocutnews.co.kr/5292072>